

## 1. 이유자돈 소모성 증후군(Post-weaning multisystemic wasting syndrome; PMWS)

**이**유자돈 소모성 증후군은 캐나다에서 1982년 처음으로 알려진 질병으로 이유자돈의 성장지연, 설사,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원인체는 썬코바이러스(circovirus)로 최근 확인되어졌

구결과과는 뚜렷한 예방대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마도 이유자돈 소모성 증후군은 21세기의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 2. 증식성 회장염

증식성 회장염은 1960년대부터 발생하는 질병으로 최근에 원인체가 로소니아(Rosownia



21세기 양돈산업 어떻게 변할 것인가?

# 21세기에 주목해야 할 돼지질병과 대처방안



채 찬 희 교수  
(서울대 수의과대학)

다. 본 실험실에서도 이유자돈 소모성 증후군을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확인하여 현재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농장의 역학조사에서는 이유자돈에서 심한 호흡기 질환이 관찰되고, 분리된 세균에 효과적인 항생제를 투여해도 호흡기 증상이 개선이 안되는 경우를 관찰했다. 따라서 이유자돈 소모성 증후군은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과 감별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까지 연

intracellularis)로 밝혀졌다. 증식성 회장염은 돈사의 청결상태가 호전되면서 발병빈도가 증가하는 질병으로 미국에서는 조기이유 등 새로운 사양기법이 도입된 후 폭발적으로 발병률이 증가되는 질병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비육말기 사료에 성장촉진 항생제 첨가가 억제되고 출하체중이 증가된 후 발생률이 서서히 증가되고 있다. 국내 역학조사에서도 검사한 35개 농장 중 7개 농장에서 증식성 회장염

감염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감염률(20%)은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질병은 치료하지 않으면 폐사율이 70%에 이르고 특히 출하전후 연령의 비육돈에서 혈변을 동반한 폐사가 유발되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가 높은 실정이다. 증식성 회장염의 원인체는 전세계적으로 1~2곳의 실험실에서만 분리되기 때문에 원인체 분리에 의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할 수가 없다. 다행히 최근 몇몇 항생제가 증식성 회장염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어 미국에서 예방 및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치료와 예방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증식성 회장염은 살모넬라증, 돈적리, 돈편충과 매우 유사한 임상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질병예방에 도움이 된다

### 3. 부종병

부종병은 매우 오래된 질병이지만 사료의 질과 청결한 사육환경의 위생상태가 개선되면서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질병이다. 부종병이 분비하는 독소는 대장균 O:157이 분비하는 독소와 매우 유사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질병이다. 부종병은 35~50일령 사이에 신경증상을 유발한다. 하지만 신경증상 없이 준임상형으로 이유



- ▲ 소모성 증후군의 일환인 위축성 비염에 감염된 돼지
- ▶ 증식성 회장염에 의한 회장내 유상(紐狀)의 응혈괴
- ▲ 부종병 발증돈에 있어서 안검 주위의 부종



자돈이 위축만 되고 설사를 동반하는 케이스가 국내외로 증가되고 있어서 경제적 피해가 증가된다. 부종병 원인체는 대장균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이용하여 질병 치료 및 예방이 가능하지

만 발생한 농장에서 질병을 쉽게 근절시킬 수 없다. **양돈**